



2004 국제세미나 -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국제협력체제 구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월 17일(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 이슈에 다양하게 접근함으로써 한국대학의 질 향상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제화와 대학교육개방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의 기초발표에 이어,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개선’(박경재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과 ‘해외인턴십 운영성과와 과제: 경북대 사례’(손형숙 경북대 국제교류센터장)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에서는 이번 국제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주제발표 1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I.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 세계화'와 '세계화 교육'을 들 수 있다. '교육의 세계화'는 우리의 교육을 국제적 표준에 맞도록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세계화 교육'은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여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양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 학생들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는 것은 대학의 국제화, 세계화에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 국제교육경험 및 연구역량 강화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 역사, 사회 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I.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04년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6,832명으로 2003년 12,314명에 비해 36.7%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같은 해 해외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유학생 수인

187,683명의 약 9%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의 유학생이 14,563명(86.5%)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8,960명, 53.2%)과 일본(2,418명, 14.4%)이 전체 유학생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유학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우수학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미래 지도자 양성에 기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학형태별로는 자비유학이 12,842명, 우리정부 초청이 391명, 대학초청이 2,527명, 외국정부과건이 197명으로 자비유학이 전체 유학생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 시각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으나, 국내 교육의 국제화 촉진과 친한·지한 인사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며, 국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더욱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전공별로는 대학·대학원의 정규과정 유학생(11,121명) 중 이공계열(31.0%) 또는 예체능계열(4.6%) 전공자보다 인문사회계열(64.4%) 전공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정보통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해외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국내 이공계 인력 부족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에 9,079명(53.9%), 지방대학에 7,753명(46.1%)의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등 수도권 대학에 유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방대학은 적극적인 해외 홍보 및 학사 시스템 개선 등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의 학생미충원률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Ⅲ.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현황

대학은 '대학의 국제화'가 중요 화두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의 수준을 global standards에 맞게 제고시키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도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교육진흥원에 86명 수용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였으며('02년), 강원대·신라대·경희대 등 3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신·증축비를 지원('03년)하였다.

또한, 한국 유학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외유학박람회에 참가하거나 개최하였으며, 2004년에는 중국·베트남·인도 등 6개 국가 8개 도시에서 유학박람회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2003년부터 온라인 한국유학 안내시스템(www.study-

korea.go.kr)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국내 대학 정보제공, 상담 및 입학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한국유학 안내시스템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03년 월 접속건수가 1,900여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세계 25개국의 학생들이 국내 64개 대학에 지원(136건)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04년 3월부터 유학사증 발급인정서 첨부서류를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호구부(중국인만 해당) 등 3~4종으로 간소화·표준화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유학생관리지침('99) 및 외국인어학연수생관리지침('04)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문제점

1) 외국인 유학생 입국 지원 측면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입국지원 및 수학여건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있으나, 아직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유학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를 표준화('04년 3월)하였으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첨부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동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외 유학박람회가 해외 주재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정부·대학·기업 등의 유학생 지원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온라인 통합 안내·홍보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한국유학이 결정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해외에서 한국어·한국문화 등에 대한 예비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유학생의 국내 적응을 미리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를 높이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또한,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사업'의 초청인원이 연간 55명 수준으로 문화협정 및 교육교류약정을 체결한 국가(86개국) 당 1명 초청 수준에도 못 미치며, 생활비 지원액(월 72만 원)이 타국가·타부처에 비해 낮아 우수 장학생 유치 및 친한 인사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2)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 취약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적 한계로 인한 수학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외국어 전용강좌와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전체 강좌 중 6% 정도만이 영어 강좌로 운영되고 있으며(02년),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의 26%, 전문대학의 5%(04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도 49.9%에 그쳐 생활비 지출 부담 등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호도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미흡하여 자비 유학이 곤란한 개발 도상국 학생의 유치가 어려움이 있다. 이 밖에도 대학에 국제교류센터 등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조직 및 전담직원이 부족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미흡하며,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이탈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3) 취업·추수지도 및 사후관리 소홀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 중 많은 수는 졸업 후 국내 기업이나 자국의 한국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 간의 외국인 유학생 정보공유 등 협조체제가 미비하여 졸업과 취업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귀국 유학생에 대한 대학별 사후관리 체제가 미흡하여, 유학생 DB구축, 귀국 유학생에게 정기소식지 및 전공 관련 학술지 발송, 학교행사예의 초대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유학생 유치에 대한 인식 및 투자 부족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필요성 및 유치 성과에 대한 의문, 투자 주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부, 대학, 기업 등의 유학생 유치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사업이 예산은 30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제교육진흥원의 유학생 유치 담당인력이 각각 2명, 4명 수준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 타국가에 비해 매우 적어, 전문적인 정책 마련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학생지원과 10여명의 직원이 유학생 업무를 총괄하고, 산하기관인 학생지원기구 270여명의 직원이 유학생 사업 집행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IV.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유학

생 유치국으로 발돋움하고자 2004년 12월 6일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수립·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만명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의 확대·개편

아시아 우수 학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55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초청인원을 점차 확대하고, 이중 아시아 지역학생을 50%이상으로 하여, 상대국 정부가 추천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초청국가·지원분야를 선정하고, 기업이 이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졸업 후 채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등 정부·대학·기업이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2.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해 재외공관,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재외공관을 유학생 유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공관장의 근무실적 평가에 유학생 유치·상담 실적을 반영하고, 중국의 북경·심양·청도 등 유학수요가 많은 지역에 교육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한국교육원 기능을 유학생 유

치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실적을 교육원장의 근무기간 연장 심사에 반영하고, 베트남 등 한국유학 및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지역에 한국교육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유학수요가 높은 중국 지역 한국학교에 교사를 추가로 파견하여 한국유학 홍보 및 사증발급 업무를 지원토록 할 것이다.

3. 한국 유학 홍보 강화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유학 홍보를 보다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을 활용하여 정부·기업·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초청 프로그램 및 취업 정보 등에 관한 '통합 안내·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교통상부 및 재외 공관 홈페이지에 탑재할 것이다. 또한,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시 문화관광부의 해외 문화원, 국정홍보처의 해외한국문화원·홍보관 등과 연계하여 한국 문화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NAFSA, EAIE 등 해외 국제교류협회가 주관하는 유학 박람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등 개최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동 행사에 대한 외국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외국인 유학생 수학·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유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학업에 더욱 전념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이 언어적 불편으로 인해 수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의 외국어 전용강

좌 및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의 공동참여를 통한 주요 거점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을 장려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8개 지역대학(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KAIST, 한남대, 한밭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국제화 도모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공동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외국인 기숙사 건립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학특성화지원사업 및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각 대학별 우수학과를 집중 육성하여 이 분야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을 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확대

해외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을 활용하여 한국유학이 결정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한국문화 등의 예비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학생의 국내적응을 미리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유학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지역을 확대하고, 문화관광부와 협조하여 외국인의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토록 하겠다. 이 외에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설치 및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6. 효율적 행정 지원체제 구축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사증 발급절차의 간소

화를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대학의 유학생 불법체류 비율에 따라 사증발급 심사를 차등화하는 '학교책임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 유치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제교육진흥원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인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담당자·관련부처·기업 등 민·관·산으로 '유학생 유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학과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기업의 채용비용을 절감하고, 대학의 유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V. 맺는 말

현재 세계 각 국은 교육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자국에 우호적인 해외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한 해 약 5,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한 결과, 2003년에 유학생 10만 명 유치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인한 전폭적인 지원 부족,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 미흡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Study Korea 프로젝트'를 계기로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실제적 주체인 개별대학이 유학생 유치를 위한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다. 대학 특성화를 통해 유학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유학생을 집중 유치하고, 유학생 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해외 유학생 유치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유학생 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와 '해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대학생 해외인턴십 추진 성과와 과제 - 경북대 사례

I. 해외인턴십 추진 배경

경북대가 적극적으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전문적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세계경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세계적 안목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인턴십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지방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갖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배

출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게 되었다. 셋째, 많은 대학생들이 국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immersing program이 효율적이며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이러한 immersing education에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어학능력향상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교육효과를 가져온다.

II. 해외인턴십의 장점

해외인턴십은 주수혜자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인턴십을 제공하는 회사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준다. 먼저 학생들이 해외인턴십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1)졸업하기 전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2)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향후 진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된다. 3)실제 업무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4)국제적, 다국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5)외국어능력습득에 큰 도움이 된다. 6)전공능력을 심도있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특히 이공계, 컴퓨터 관련 전공의 경우). 7)자신감 및 직업적 성취감을 크게 향상시켜준다. 8)마지막으로 대학졸업후 취업을 하는데 크게 유리한 경험으로 작용한다. 뿐만아니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인턴십의 제공자인 기업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준다. 1)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있는 고급

인력풀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인턴직 학생들에게 실제 업무를 맡겨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보다 중대하고 생산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3)향후 회사가 고용할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이 된다. 4)기존 사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 및 다양한 문화 체험에 도움이 된다.

Ⅲ. 경북대 해외인턴십 모델(KNU Model)

현재 경북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인턴십 모델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모델은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전공과의 직접관련성이 큰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professionally-related internship이다. 두 번째 모델은 방학을 이용한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전공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일을 하게 되는 life-experience internship 프로그램이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은 professionally-related internship의 경우, 비자발급비, 건강보험료, 직장에 배치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여행경비를 합하여 약 4백~6백만 원 정도이며, life-experience internship의 경우에는 약 2백5십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 해외인턴십 참가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매달 영어로 작성하는 보고서, 귀국후 한국어로 작성하는 최종보고서, 그리고 해외기업 고용주에 의해 작성·발급되는 학생업무평가서 및 수료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다(학점은

A/B/C/D/F식이 아니라 Pass/Failure 두 단계로 구분되며 2개월당 6학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Ⅳ. 해외인턴십 운영실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선발은 통상 프로그램 개시 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데, 어학능력·동기부여능력들을 평가하는 인터뷰, 이전의 해외경험여부, 경북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여부등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출국전에 resume, cover letter, writing sample 등을 작성해서 자신들이 일하게 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경북대 국제교류센터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를 editing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교류센터는 학생들의 현지적응능력을 극대화하기위해 영어회화클래스 등록, 비자업무 처리, 전화 인터뷰 훈련, 미국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Ⅴ. 해외인턴십관련 통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시행 원년인 2000년 63명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11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 9.11 테러사건의 여파 및 미국경기침체 영향으로 2002년, 2003년에는 각각 77명, 6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04년 다시 100명을 상회하였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여학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왔다.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경계 대학, 이공계 대학, 그리고 인문계 대학 소속 학생들의 해외인턴십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상경대 및 이공계 대학에서 나타나는 높은 비율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상대적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인문계 대학에서 발견되는 높은 비율은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현실 인식하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기간별 학생들의 참여도를 살펴보면 모든 장단기 프로그램 걸쳐 비교적 고르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개월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30%, 4개월은 25%, 6개월은 22%, 그리고 12개월 또는 18개월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23%이다). 해외인턴십 모델별 학생 참여 분포를 살펴보면, life-experience internship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체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61%)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대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기업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20개 업체를 시작으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참여 기업수가 30여개에 머무르다가 2004년에는 70여개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경북대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Ⅶ. 해외인턴십의 과제

해외인턴십은 대학생들의 국제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

하고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어려움들은 향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인턴십 참여 비용이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참여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예컨대 노동부, 산업자원부, 교육부의 지원 및 이들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2) 해외인턴십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학생들이 해외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비상상황에 대학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인턴으로 일하는 학생의 업무태도 및 성과는 기업이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속한 대학,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태도 및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5) 해외인턴으로서 일하는 활동무대를 다변화시켜주는 것도 주요 과제중 하나이다. 현재 미국 중심의 해외인턴 포지션을 유럽, 호주, 및 중국으로 확대시켜야 나아가야 하며, 미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과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업과 인턴으로서의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턴십이 제공되는 현지 대학과 joint program을 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